

벚꽃이 피었습니다

배움의 庭園



임효경
완도중 교장

완도 청해진 바다가, 온 세상이 안개로 가득하네요. 올해 봄은 왜 이러는 걸까요? 4월이 되었는데, 졸군 내리는 비에 늘 기분이 우울해 있는 듯한 흐린 하늘. 봄의 전령인 그 찬란한 햇빛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 날들입니다. 참으로 난감한 날씨입니다. 그와중에도 벚꽃은 온 세상에 온 거리마다 팝콘 터지듯 여기저기 뭉뚱뚱 피었습니다.

완도중 친목회 회장과 총무가 교직원 꽃 나들이를 야심 차게 준비하는데, 이렇게 날씨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방과 후 완도타워 옆 남파랑길 숲길을 오르며 벚꽃 노래를 부르고 사진도 찍자고. 그래서 드레스코드 발령까지 냈는데 말입니다. 분홍색, 하양 혹은 노란색으로. 3월 내내 열기 왕성 부잡한 남학생들과 부대끼느라 텅텅해진 목에 돼지 삼겹살 기름칠 한번 하자고 그렇게 계획을 짜 보건만. 야속한 날씨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3월 한 달 내내 진짜 애썼거든요. 잠깐 따뜻했다가 다시 쌀쌀해지는, 칙칙한 회색빛 바다 날씨랑 싸우느라 고운 얼굴들이 초췌해졌어요. 3월 마지막 주 목요일 저녁 5시에 학부모 대상 학교교육과정 설명회가 있었어요. 사전 조사에 120명의 부모님들이 참석 희망을 하셨습니다. 삼분의 일을 넘는 부모님들의 수입니다. 우리 바짝 긴장해야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학교교육과정 설명자료 및 학부모교육 자료 제작과 학부모와의 상담 준비하느라 밤 10시까지 초과근무 견뎌냈고요, 벚꽃은 온 천지에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신규 선생님들이 대부분인 우리 학교. 3월 마지막 한 주 동안 이루어지는 교내 동료장학 수업공개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그래도 씩씩하고 담

대하게 역시 임용고시 출신답게 수업을 공개하는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긴장한 듯 하지만 느긋하게, 자신의 수업 기량을 맘껏 펼치는 모습이 젊음의 향연이었습니다. 요즘 SNS 동영상상을 보고 자란 세대들은 교탁을 무대처럼, 수업 공개 참관하고 있는 교장과 교사들의 시선에도 아랑곳없이 연예인처럼 익숙하게 수업을 진행합니다. 또 일타강사처럼 수업 내용 전달에 막힘이 없고 아이들과 이야기도 맛깔나게 합니다.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참 귀한 재원(財源)입니다.

“벚꽃도 오래된 나무일수록 아름다운 이유가 겹고 웅장한 가치를 지녔기 때문이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활기차고 신나게 기개를 펼칠 수 있는 것도 저들을 지탱해 주는 든든한 배경들, 우리 선생님들과 교직원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보면 우리나라의 기적과 같은 경제 번영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교육 현장의 교사들의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 민족이 세계 방방곡곡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겠습니까?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교사들은 어떤 개성 교육과정이 주어지더라도 그 어렵고 비현실적인 과정들을 다 흡수하고, 적응하고, 교육 현장에서 실행해 내면서 어떻게든 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가 학교 의존도가 높아지고 학교에 요구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 아닐까요? 교육의 영역을 넘어서 돌봄의 영역까지 다 감

당하느라 우리 학교도 참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 헤쳐 나가는 우리 선생님들 보면 장하고 자랑스롭습니다. 마치 작년에도 벚꽃은 피었고 올해에도 벚꽃이 피어난 것처럼, 오히려 더 굵고 더 단단한 가치를 지닌 벚꽃을 보는 것처럼 말이지요.

우리 완도중에는 벚꽃 나무가 없습니다. 비자나무, 소나무, 동백나무, 홍가시나무, 구실잣나무 같은 상록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입생들이 거친 야생화 습성을 내보이고 피어납니다. 저 거친 들판의 꽃과 풀들이 영역 다툼, 세력 다툼을 하는 것처럼. 완도 구도심에 있는 완도초 출신 학생들과 신도심에 있는 완도중앙초 출신 학생들 간의 묘한 상호 견제가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선생님들은 금방 알아차리고, 어느새 조치를 다 했습니다. 어이~ 너희들 스포츠클럽 축구반에 들어오고 싶어? 아니야? 한마디면 된답니다. 그렇게 열망하는 축구팀에 끼어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체육과 학생부장님 눈에 벗어나는 짓을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은 심리학 박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심리학 석사들입니다. 아이들의 심리를 어쩌면 저렇게 잘 알까요? 벚꽃나무는 한 그루도 없지만 우리 학교는 벚꽃 향기처럼 싱그럽고 담백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올해 어느 봄날, 전남대 흥매화를 찍으러 갔습니다. 나는 열심히 내 키 높이에 있는 아름다운 꽃잎을 찍어 대는데, 옆에 계신 전문 사진작가님은 카메라를 땅에 두고 매화나무 가지를 주인공으로 찍으시는 겁니다. 아, 깨달았습니다. 흥매화의 저 아름다운 꽃 색깔은 붉고 검은 저 매화 가지를 배경으로 하니 더 돋보이는 것이었구나. 벚꽃도 오래된 나무일수록 아름다운 이유가 겹고 웅장한 가치를 지녔기 때문이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활기차고 신나게 기개를 펼칠 수 있는 것도 저들을 지탱해 주는 든든한 배경들, 우리 선생님들과 교직원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벚꽃이 온 천지를 뒤덮은 날에 불러 보는 벚꽃 앤딩입니다.



에세이 | 유순남 수필가

단 십분의 인연

그것은 순전히 그곳에 바다가 있어서다. 영광에도 근무할 자리가 있었고, 강진 쪽에서도 근무해달라는 전화가 왔었는데, 교통비는 말할 것도 없고 시간도 훨씬 더 드는 완도, 그것도 배를 타고 들어가는 섬 중학교를 택했다. 바다보다 더 낭만적인 장소가 있으려! 나에게 바다는 아직도 첫사랑처럼 설레고 가슴을 뛰게 한다. 그런데 관사가 없단다. 이유는 예전에 없던 공존 교실 지원 강사 같은 자리가 새로 생기고, 학생 수가 늘어서 그동안 없었던 특수 교사, 위 클래스 교사, 진로 교사 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는 학생 수가 줄어가는데, 우리 학교는 3학년이 36명, 2학년은 49명, 1학년은 44명으로 늘었다. 이 학생들이 태어날 무렵 주민들의 수입원인 전복 값이 좋아 젊은 부부들이 늘어서 출생률도 덩달아 올라간 것이다. 채용이 결정된 2월 말.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가서 원룸을 알아보니 빈방이 없었고, 일반 주택 건물은 방 세 개에 화장실이 공용이었고, 남녀 구분이 없었다. 다리 건너 섬에 원룸 하나 있었는데,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샤워 시설도 없고 새집증후군 때문에 살기 힘들 것 같았다. 학교로 다시 가서 토박이인 행정실 주무관과 야간 지킴이 김 선생님에게 염치없이 방 좀 알아봐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출근 하루 전날인 3월 3일. 전화를 해보니, 김선생님이 시골집 하나가 있는데 2년 전까지 사람이 살았으니 살만할 것이라고 했다. 김 선생님이 소개한 시골집은 아담한 남향집이었다. 짐을 내리고 구석 구석 둘러보니 손볼 곳도 많은 데다 샤워 시설이 없고 화장실은 밖에 있었다. 이삿짐을 다시 싣고 김 선생님과 함께 옆 섬 원룸으로 갔다. 원룸 주인에게 전화하니 종교단체에서 4박 5일로 수련회 중이라며 나를 동안을 모텔에서 지내라고 했다.

날은 저물고 처량한 나그네 신세가 되었다. 멀리 보이는 바다는 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출렁거리며 파도를 만들고 있었다. 통화 내용을 들으며 짐을 내리던 김 선생은 “선생님, 우리 집으로 갑시다!” 하더니 내린 짐을 자기 트럭에 실었다. 당황스러워서 “사모님께 먼저 전화를 해보세요.”라고 했는데, 못 들은 척하며 출발해 버렸다. 나는 하는 수 없이 김 선생님

트럭을 따라갔다.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그 맥 안주인은 “오메! 팔 년을 혼자 자서 좋더니, 이를 동안 저 양반 때문에 잠을 못 잤는디, 인자 흑까지 달고 왔네!” 하며 활짝 웃었다. 겸연쩍고 미안한 마음에 나도 따라 웃을 수밖에 없었다. 집은 컷지만 쓰는 방이 하나라 셋이 한방에서 잤다.

다음 날 동료들이 방은 구했냐 해서 전날 일을 얘기했다니 “부부가 자는 방에 가서 잤냐?”며 놀렸다. 옆자리에 앉은 선생님이 자기가 사는 고등학교 구 관사 2층에 방 하나가 비어있는데 작년에 누군가 살았다 하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점심 시간에 가보니 여태 본 세 개의 집보다 훨씬 나았다. 행정실장에게 그곳에 살수 없겠냐고 물으니 고등학교 행정실장에게 전화 해주었는데, 작년 장마철에 비가 새서 방수공사 전에는 입주하느라 책임 소재 때문인 듯 결정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에게 미뤘다. 교장실로 가서 그간에 있었던 일을 소상히 얘기하고 도움을 청했다. 교장선생님은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에게 전화해 주었고, 다행히 그날 퇴근 후 고등학교 구 관사에 입주할 수 있었다. 김 선생님에게 관사 입주를 알렸더니 본인 일처럼 기뻐하며, 자기 집 냉장고에 넣어 두었던 반찬을 가지고 와서 이삿짐 중 무거운 것들을 2층으로 올려다 주었다.

김 선생님은 어쩌면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2월 말까지 근무하고 떠나는 사람이고, 나는 3월부터 근무할 사람이었다. 2월 마지막 날 적당한 방을 구하지 못해 다시 학교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퇴근 시각이 지난 후였다. 교무실문이 잠겨 행정실로 들어가 김 선생님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 행정실 주무관님은 오랫동안 함께 근무한 큰형(78세) 같은 김 선생님과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 이별주를 나누고 있었다. 잠깐 그 분위기에 함께하다가 배 시간 때문에 두 사람에게 주변에 빈집이 있으면 알아봐달라고 부탁하고 나왔다. 그와 내가 함께했던 시간은 딱 10분이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연으로 그렇게 성심을 다해줄 사람이 또 있을까? 나는 김 선생님의 사람을 대하는 진심 어린 마음 때문에 편히 지낼 수 있는 집을 만났다. 아니 이곳에서 ‘바다’보다 낭만적인 ‘사람’을 만난 것이다.

따뜻한 시선이 생명을 구한다

기고



지선희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하얀 몽우리 목련이 활짝 개화를 시작한 이후 순서를 시샘하듯 벚꽃도 서로서로 앞다투어 연분홍 꽃망울을 피우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산과 들, 도로변, 학교 캠퍼스가 봄꽃으로 물들었다. 따스한 봄기운이 우리의 일상을 감싸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도 훈훈하게 해주는 이웃의 소식이 들려온다. 이들은 바로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고 생명을 지키는 경찰관들이었다.

퇴근 후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들른 식당에서 고개를 떨군 채 미동이 없던 어르신을 주의 깊게 살폈다. 어르신은 홀로 식당을 찾았는데 종업원의 말에 반응도 없고, 고개만 숙인 채 오랜 시간 움직임이 없으니 그냥 지나

칠 수 없어 바로 다가가 어르신은 상태 체크 및 빠른 119 출동 조치, 필요한 응급조치 등을 하고 병원 이송까지 함께했다. 이 경찰관들의 도움으로 어르신은 의식을 찾고 귀한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경찰관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평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근무했는지 눈에 보인다.” 등 댓글을 남겼다.

이런 경찰관들의 선행뿐만 아니라 퇴근길에 상가에서 불길기 치솟는 것을 목격하고 소화기로 화재를 조기 진압해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재산을 지켜준 소방공무원들의 소식을 접할 때 안전 대한민국의 바탕을 이루어 주는 분들의 고마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이뿐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이웃 중에도 홀로 무거운 폐휴기 수레를 끌고 가는 어르신은 수레를 직접 끌어주는 학생들, 보행자 신호 안에 빠르게 길을 건너지 못하는 어르신과 함께 교차로를 함께 건너며 운전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학생들의

기사 등 이런 따뜻한 선행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뜨거워짐을 느끼게 된다. 개인적으로 일상에 지쳐있거나 힘들 때 나를 응원해 주는 주변의 따뜻한 한마디가 나의 유능감을 키워주고 자신감을 높여준 기억을 하나쯤은 갖고 있을 것이다. 어느 유명 영어강사의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갖는 건 기적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지금 우리는 남들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지하철에서는 모두 들 휴대전화에 고개를 박고 있고, 길에 누가 쓰러져있어도 못 보고 지나치기도 할 정도로 각박한 세상이다. 그래서인지 이런 기사를 볼 때면 가슴이 더 따뜻해지고 뭉클함이 올라오는지도 모르겠다.

이웃과 주변을 향한 따뜻한 시선은 각박한 세상에 따뜻함과 긍정의 메시지를 주어 ‘따뜻함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따뜻한 시선’을 실행에 옮겨보자. 나의 실행이 하나가 아닌 수십, 수백, 수천의 나비효과를 기대해보면서 말이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9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한 훈련소에서 우크라이나 제3 돌격여단 신병들이 훈련하고 있다.
키이우-AP/뉴시스